

수록 유형

글의 순서 12문항

문장 삽입 9문항

무관한 문장 13문항

글의 순서

25년 9월 고2 20번

1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actics” is a term drawn from military usage. Strategies are plans of action directing a military force when attacking another, and tactics are responses to conditions on the ground.

(A) These aren’t tactics to eliminate waiting; instead, these are tactics for teaching us how to learn from the seams. These tactics have the potential to reorient us in profound ways, transforming our perspectives on our wait times.

(B) In this vein, time is imposed on us by our cultures, by the technologies that have regimented time down to the nanosecond, and by its own finite nature and the fact that we’re going to live only so long. In response, we must develop tactics for dealing with time and waiting.

(C) Such renewed perspectives transform waiting from a burden to a springboard toward things like creativity, social critique, or reflection on our inner state and the state of our relationships.

*regiment: 조직화하다 **seam: 이음매

-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25년 9월 고2 21번

2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Mirror neurons are the hardware of empathy, and so what would make more sense than to look and see which animals possess these cells?

(A) I can see a goldfish waving its fin at us. As an animal that travels around in a tightly-knit group, it’s on board with this idea— or at least swimming alongside the boat.

(B) Scientists often publicly speculate that we can probably expect surprises here, too. They assume that all animals that live in herds or large groups possess similar brain mechanisms, because social units function only if individuals can see things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in the group and feel what they are feeling.

(C) And this is exactly where modern research now stands: all researchers know so far is that apes possess mirror neurons. We still need to test to see which other species are like us in this respect.

-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25년 9월 고2 23번

3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s conceivable that in a world where solar panels are incredibly expensive and there’s an extreme collapse in the cost of launching objects to space, you might want to maximize your energy per panel by putting them above the atmosphere.

(A) But panels are cheap, and even if we assume pretty steep drops in the cost of space launch, the numbers don’t add up. This becomes especially clear when you start to think about maintenance.

(B) Solar panels in Australia can be cleaned by a teenager with a spray bottle and a cloth.

(C) Try to imagine acres upon acres of glass panels in space, regularly hit by intense radiation and bits of space debris while enduring the extreme heat of constant sunlight. They’ll have to be repaired and cared for either by astronauts or an army of advanced robots.

*debris: 파편

-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25년 9월 고2 24번

4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erything in the world exists on a continuum, whether in speed, size, or any other possible descriptor you could think of. Still, we create and mindlessly adopt sharp distinctions, and those distinctions change lives far more dramatically than marginal differences ever do.

(A) We don't have to be statisticians to know there is not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69 and 70. Yet once the person with the lower score is labeled "cognitively impaired," his or her life will unfold differently than the person with a one-point advantage.

(B) Indeed, all differences are arbitrary, but drawing hard lines between categories hides this arbitrariness and can be severely damaging. I call this resulting damage "the borderline effect."

(C) The examples are endless. Someone's IQ is 69 and someone else's is 70 —but only the score of 70 is deemed to be within the range of normal.

* arbitrary: 자의(恣意) 적인

-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25년 9월 고2 29번

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l human cultures mark the passing of time by the differences they observe in the world around them.

(A) In the agricultural society of pre-modern Europe, where higher latitudes make the seasons easily observable, it was natural to monitor the solar cycle.

(B) Our choice of which differences to mark depends firstly on what we can observe and secondly on what is important in our lives. How we mark the differences —the shapes of our calendars and our rituals —depends on the connections we make between those two things.

(C) Conversely, among the largely nomadic peoples of Arabia, for whom seasonal changes were less significant, the lunar calendar was a more sensible choice. That did not make it inevitable that Islam would use a lunar calendar and Roman Christianity a solar one, but political and religious decisions were made from options limited by geography and lifestyle, filtered through tradition.

* latitude: 위도 ** nomadic: 유목(생활)의

-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25년 9월 고2 30번

6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though empathy is widely praised by scholars and public figures, not everyone is an empathy booster. Critics of empathy argue that empathy will not save us from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conflict.

(A) They argue that we tend to empathize strongly with our in-group and resist empathizing with out-groups, and even enjoy the suffering of out-groups in competitive or threatening contexts. Thus, the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is often counterproductive in cases of conflict. Empathy, they argue, can further encourage conflict and force us into an us vs. them mentality.

(B) Finally, even when we try to empathize with others who are dissimilar from us or in unfamiliar contexts, sometimes we are unable to accurately empathize with their experiences, causing further misunderstandings and frustration. Critics of empathy argue that we should give up on empathy and employ other tools in pursuit of social harmony, e.g., rational compassion or moral emotions like fear, anger, and shame.

(C) In fact, they argue, empathy makes such conflicts worse. These critics maintain that empathy can be exhausting and lead to burnout or insensitivity to suffering.

-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정답 한눈에 보기

1 ②	2 ⑤	3 ①	4 ③	5 ②	6 ④	7 ③	8 ⑤	9 ④	10 ①
11 ④	12 ②	13 ③	14 ③	15 ②	16 ⑤	17 ③	18 ④	19 ③	20 ②
21 ④	22 ②	23 ④	24 ①	25 ④	26 ①	27 ⑤	28 ③	29 ①	30 ②
31 ④	32 ③	33 ⑤	34 ①						

무관한 문장 문항의 정답 문장은 원문에 없는 문장이다. 그 외 모든 지문은 원문 무삭제·무요약이며 배열과 위치만 바꾸었다.

1 글의 순서

정답 ②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tactics를 군사 용어로 정의하고 “responses to conditions on the ground”라 못 박는다. (B)가 In this vein으로 그 비유를 시간으로 옮겨 시간을 다룰 전술이 필요하다는 데까지 끌고 가고, (A)의 These aren’t tactics가 바로 그 전술을 받는다. (C)의 Such renewed perspectives는 (A) 끝의 perspectives를 받으므로 마지막이다.

선지 분석

- ① **지시어 단서** — (A)를 첫머리에 두면 These tactics가 받을 대상이 주어진 글에 없다
- ② **정답**
- ③ **지시어 단서** — (C)의 Such renewed perspectives가 (B)에는 없다 — (A)를 거쳐야 생긴다
- ④ **지시어 단서** — (C)가 첫머리면 renewed된 관점의 근거가 앞에 없다
- ⑤ **지시어 단서** — (C)를 첫머리에 두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문 해석

‘전술(Tactics)’은 군사적 용법에서 끌어온 용어다. 전략은 한 군대가 다른 군대를 공격할 때 그 군대를 지휘하는 행동 계획이고, 전술은 지상의 조건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간은 우리의 문화에 의해, 나노초 단위까지 시간을 조직화해 온 기술에 의해, 그리고 시간 자체의 유한한 본성과 우리가 그만큼 살게 되리라는 사실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된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시간과 기다림을 다루기 위한 전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들은 기다림을 없애기 위한 전술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이음매에서 배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전술이다. 이 전술들은 우리를 심오한 방식으로 재정향하여 대기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 놓을 잠재력을 지닌다. 그렇게 새로워진 관점은 기다림을 짐에서, 창의성이나 사회 비평, 혹은 우리 내면 상태와 우리 관계의 상태에 대한 성찰 같은 것으로 나아가는 도약대로 바꾼다.

2 글의 순서

정답 ⑤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거울뉴런이 공감의 하드웨어라며 어떤 동물이 이 세포를 갖는지 보자고 묻는다. (C)가 And this is exactly where modern research now stands로 그 물음에 현재 연구 수준을 답하고, (B)가

아직 검사하지 못한 종들에 대한 과학자들의 추측을 잇는다. (A)의 this idea는 (B)의 그 가정을 받으므로 마지막이다.

선지 분석

- ① **지시어 단서** — (A)의 this idea가 받을 가정이 앞에 없다
- ② **지시어 단서** — (B)의 surprises here, too에서 here가 가리킬 연 구 현상이 없다
- ③ **연결어 단서** — (B)를 첫머리에 두면 too가 견줄 앞 내용이 없다
- ④ **연결어 단서** — 결론인 (C)의 현황 보고가 추측인 (B)보다 뒤에 올 수 없다
- ⑤ **정답**

전문 해석

거울뉴런은 공감의 하드웨어다. 그러니 어떤 동물이 이 세포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보다 더 합당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현대 연구가 서 있는 자리다. 지금까지 모든 연구자가 아는 것은 유인원이 거울뉴런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다른 어떤 종이 우리와 같은지 알아보기 위해 여전히 검사를 해 보아야 한다. 과학자들은 여기서도 아마 놀라운 사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종종 공개적으로 추측한다. 그들은 무리나 큰 집단을 이루어 사는 모든 동물이 비슷한 뇌 기제를 지니고 있으리라 가정하는데, 사회적 단위란 개체들이 집단 내 다른 개체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고 그들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금붕어가 우리를 향해 지느러미를 흔드는 것이 보인다. 촌촌히 뭉친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동물로서, 금붕어는 이 생각에 동참하고 있다 — 적어도 배 옆에서 나란히 헤엄치고는 있다.

3 글의 순서

정답 ①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패널이 아주 비싸고 발사 비용이 폭락한 세상이라면 우주에 패널을 두고 싶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편다. (A)의 But panels are cheap이 그 가정을 곧장 뒤집고 화제를 유지보수로 넘긴다. (C)가 우주에서의 유지보수를 구체화하고, (B)가 지상 패널의 손쉬운 청소로 대조를 맞는다.

선지 분석

- ① **정답**
- ② **연결어 단서** — (B)의 지상 패널 대조가 우주 쪽 서술보다 앞설 수 없다
- ③ **연결어 단서** — (B)를 첫머리에 두면 견줄 대상이 없다

- ④ **지시어 단서** — (C)의 acres upon acres가 유지보수 언급 없이 튀어나온다
- ⑤ **연결어 단서** — (A)의 But이 뒤로 가면 뒤집을 가정이 이미 사라진 뒤다

전문 해석

태양광 패널이 엄청나게 비싸고 물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비용이 극단적으로 무너진 세상에서라면, 패널을 대기권 위에 둬으로써 패널당 에너지를 최대로 뽑고 싶어질 법도 하다. 그러나 패널은 값이 싸고, 우주 발사 비용이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 점은 유지보수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특히 분명해진다. 우주에 몇 에이커씩 펼쳐진 유리 패널이 강한 방사선과 우주 파편 조각에 정기적으로 얻어맞으면서 끊임없는 햇빛의 극심한 열을 견디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그것들은 우주비행사나 한 무리의 첨단 로봇에 의해 수리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에 있는 태양광 패널은 분무기와 천을 든 십 대 한 명이 닦을 수 있다.

4 글의 순서

정답 ③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세상 모든 것이 연속체 위에 있는데도 우리가 뚜렷한 구분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B)가 Indeed로 그것을 받아 그 피해에 “the borderline effect”라는 이름을 붙이고, (C)가 The examples are endless로 IQ 69와 70의 사례를 연다. (A)는 그 두 점수를 그대로 이어받아 결과를 서술하므로 마지막이다.

선지 분석

- ① **지시어 단서** — (A)의 69와 70이 앞에서 소개된 적이 없다
- ② **지시어 단서** — (A)는 사례가 제시된 (C) 뒤에만 올 수 있다
- ③ **정답**
- ④ **지시어 단서** — (C)의 The examples가 가리킬 개념이 주어진 글에 아직 없다
- ⑤ **지시어 단서** — (C)를 첫머리에 두면 무엇의 예인지가 비어 있다

전문 해석

세상 모든 것은 속도든 크기든, 여러분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그 밖의 어떤 서술어에서든 연속체 위에 존재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뚜렷한 구분을 만들어 내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며, 그 구분은 미미한 차이가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삶을 바꾼다. 실제로 모든 차이는 자의적이지만, 범주 사이에 굳은 선을 긋는 일은 이 자의성을 감추며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긴 피해를 ‘경계선 효과’라고 부른다. 사례는 끝이 없다. 어떤 사람의 IQ는 69이고 다른 사람의 IQ는 70이다 — 그런데 70이라는 점수만이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여겨진다. 69와 70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통계학자일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일단 더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인지적으로 손상된’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지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은 1점을 더 가진 사람과는 다르게 펼쳐질 것이다.

5 글의 순서

정답 ②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모든 인간 문화가 주변 세계에서 관찰하는 차이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다고 한다. (B)가 그 differences를 받아 무엇을 표시할지가 관찰 가능성과 삶에서의 중요성에 달렸다는 판단 기준을 세운다. (A)가 유럽의 태양력을 사례로 들고, (C)의 Conversely가 아라비아의 태음력을 맞세워 대비를 완성한다.

선지 분석

- ① **지시어 단서** — (A)의 유럽 사례가 판단 기준보다 앞설 수 없다
- ② **정답**
- ③ **연결어 단서** — (C)의 Conversely가 맞세울 사례가 앞에 없다
- ④ **연결어 단서** — (C)를 첫머리에 두면 역접이 걸릴 대상이 없다
- ⑤ **연결어 단서** — (C)가 (B)보다 앞서면 기준 없이 대비부터 나온다

전문 해석

모든 인간 문화는 자기 주변 세계에서 관찰하는 차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다. 어떤 차이를 표시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가에, 둘째로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 차이를 어떻게 표시하는가는 — 우리 달력과 의례의 모양은 — 그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맺는 연결에 달려 있다. 위도가 높아 계절이 쉽게 관찰되는 근대 이전 유럽의 농경 사회에서는 태양의 주기를 살피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반대로, 계절 변화가 덜 중요했던 아라비아의 주로 유목하는 민족들 사이에서는 태음력이 더 분별 있는 선택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교가 태음력을, 로마 기독교가 태양력을 쓰는 일이 필연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정치적·종교적 결정은 지리와 생활 방식에 의해 제한되고 전통을 통해 걸려진 선택지를 가운데에서 내려졌다.

6 글의 순서

정답 ④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공감 비판자들이 공감으로는 갈등에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본다는 데서 끊긴다. (C)의 In fact가 그 주장을 한 단계 밀어 “오히려 악화시킨다”로 잇고, (A)가 내집단·외집단을 들어 그 근거를 편다. (B)의 Finally는 마지막 근거와 결론을 담으므로 끝이다.

선지 분석

- ① **연결어 단서** — (C)의 In fact가 논의를 다 편 (A) 뒤에 오면 강화의 자리가 아니다
- ② **연결어 단서** — (B)의 Finally가 첫머리에 올 수 없다
- ③ **연결어 단서** — (B)를 첫머리에 두면 마무리가 근거보다 앞선다
- ④ **정답**
- ⑤ **연결어 단서** — (B)의 결론 뒤에 (A)의 근거가 따라붙는다

전문 해석

공감은 학자와 공인들에게 널리 칭송받지만, 모두가 공감의 옹호자인 것은 아니다. 공감의 비판자들은 공감이 대인 갈등과 집단 간 갈등에서 우리를 구해 주지 못하리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들은 공감이 그러한 갈등을 더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비판자들은 공감이 진을 빼놓을 수 있으며 소진이나 고통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들은 우리가 내집단에는 강하게 공감하면서 외집단에 공감하기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고, 경쟁적이거나 위협적인 맥락에서는 외집단의 고통을 즐기기까지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감을 더 하라는 처방은 갈등 상황에서 흔히 역효과를 낳는다. 그들이 보기에 공감은 갈등을 더 부추기고 우리를 우리 대 그들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끝으로,